

## 〈제10회 일본경제포럼 개최결과〉

1. 개최일시 : 2016. 6.29(수) 13:30~18:30
2. 개최장소 :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볼스홀
3. 주 제 : 창업/취업 성공하려면? 저성장 시대, 일본시장에서 돌파구 찾자!
4. 주 최 : (사)한일경제협회,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경닷컴
5.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3:30~	개 회	사회 : 최인한 한경닷컴 뉴스국장
13:30~14:30 (60분)	한일 간 수평적 분업과 한일 협력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14:30~15:30 (60분)	일본 벤처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오태헌 경희대학교 교수
15:30~16:30 (60분)	일본 자본시장의 현황과 전망	노 다니엘 페닌솔라모니터그룹 대표
16:30~17:30 (60분)	일본기업 취업하려면, 취업정보 및 준비가이드	김태형 파소나코리아 대표
17:30~18:30 (60분)	창업, 취업기회 늘어나는 일본 농업비즈니스	이춘규 연합뉴스 국제경제부 박사

5. 참가자 :計 107명 (협회 회원사 15명)
  - 한일경제협회 이종윤 상근부회장, 김강희 동화엔텍 회장, 네오티스 권은영 사장, S4U 신경미 사장, 히카리정보 기병태 회장 등

## 6. 신문기사

### ① 이종윤 부회장 "한·일 분업 확대로 환율 영향력 줄여야"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10회 일본경제포럼 발표자로 나선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 최혁 기자

"한국과 일본 간 과도한 경쟁 구도는 양국 모두를 환율 변동성에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양국 산업 내의 수평적 분업을 강화해야 환율 변화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사진)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볼스홀에서 개최된 제10회 일본경제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한일 간 수평적 분업과 한일협력'을 주제로 강연한 이 부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산업 구조는 유사하다"며 "두 나라 모두 주요 산업이 정보기술(IT)·전기전자와 자동차 부품업종 등에 편중돼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비슷한 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과당 경쟁하면서 양국 교역 조건은 악화될 수 밖에 없었다"며 "아베노믹스(일본 아베총리의 경제정책)의 양적완화로 엔저(低) 현상이 지속되자 한국의 수출이 감소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 나라 모두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한일 간 산업 내 분업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업을 통해 양국 기업들의 가장 우수한 분야를 특화시키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기업 간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기업 간 기술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우수 퇴직자를 한국의 중소기업에 소개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며 "한국 입장에서선 일본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인재를 얻을 수 있고, 일본은 우수한 유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일본 제조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도 주문했다. 그는 "구마모토 지진으로 일본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의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부산 근교에 일본 부품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할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을 사실상 하나의 부품 공급망으로 만들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mailto:anhw@hankyung.com)

## ② 오태헌 교수 "벤처대국 꿈꾸는 일본, 초등학생부터 창업교육"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10회 일본경제포럼 발표자로 나선 오태헌 경희대학교 교수. / 최혁 기자

"그동안 일본 창업활동이 부진했던 이유는 일본인 대부분이 '창업가는 선천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인식을 바꾸기 위해 최근 일본은 초등학교 때부터 창업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태헌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사진)는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불스홀에서 개최된 제10회 한경 일본경제포럼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오 교수는 "일본은 '고다와리(특정한 기호에 대한 집착)' '쇼구닌(장인)' '오타쿠(한 가지 일에 전념하는 사람)' 등과 같이 창업이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창업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벤처산업의 발전을 제한해 왔다는 얘기다.

일본의 창업희망자와 창업가 수는 199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오 교수는 세계은행 자료를 들어 일본의 창업환경 순위가 120위로, 34위에 오른 한국보다도 많이 뒤쳐지고 있음을 짚었다.

그는 "일본의 창업률은 구미 선진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며 낮은 창업률의 이유로 부족한 창업가정신과 열악한 창업 환경 등을 꼽았다.

일본 정부는 최근 국민들의 창업가 정신을 높이고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오 교수는 "일본 중소기업청은 '창업대국'에 관련한 과제와 대응책을 제시했다"며 "창업가를 응원하는 사회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창업가 교육을 마련하고 창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벤처산업 활성화는 일본과 한국 모두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벤처산업이 활기를 띠어야 신성장 분야를 개척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국도 최근 일본 정부가 내놓고 있는 벤처산업 육성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국 정부의 과제로는 여성 및 대기업 퇴직자의 창업지원, 공공자금 투자 확대, 보증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대기업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오 교수는 "한국도 일본처럼 사회·경제에서 대기업의 비중이 큰편이다. 대기업 벤처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대기업들의 벤처 인수·합병(M&A)을 독려해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mailto:rrang123@hankyung.com)

### ③ 노다니엘 대표 "저축보다 투자...일본 잃어버린 20년 되찾는다"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10회 일본경제포럼 발표자로 나선 노 다니엘 페닌슐라 모니터그룹 대표. / 최혁 기자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부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자본주의적 발상에서 보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숙명적인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노다니엘 페닌슐라 모니터그룹 대표(사진)는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볼스홀에서 개최된 제10회 일본경제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표는 이날 '일본 자본시장의 진화와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운 브렉시트를 언급하며 일본 자본시장의 변화를 설명했다.

노 대표는 "브렉시트로 촉발된 작은 정부론에 대해 일본 자본시장은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있었다"며 "1989년 경제 버블 붕괴 이후 간섭과 통제로 대표되는 큰 정부의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일본은 이른바 '일본판 금융빅뱅'을 통해 금융 체질을 개선에 나섰다고 소개했다. 그는 "1989년 이전의 일본 금융은 국가의 목표 아래 자본이 이용되는 관치 금융 체제였다"며 "맹목적인 저축, 투자를 좌악시키는 분위기 등으로 소비가 진작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후 위축된 소비로 경기침체가 지속되자 경제 시스템을 전격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노 대표는 "잃어버린 20년에 접어든 일본은 저축을 장려하던 슬로건을 완전히 철회했다"며 "1996년 하시모토 정권은 '저축에서 투자를'를 모토로 시장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은 이후 '자유로운 시장' '투명한 룰' '세계적인 활약'이라는 세가지 키워드를 내걸고 간접금융 위주에서 탈피하기 위한 금융 개혁을 실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아베노믹스(일본 아베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그동안 일본이 지향해온 시장 중심의 금융개혁과는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다.

노 대표는 "아베노믹스는 정부가 중심이 돼 무제한적인 양적완화를 주도하는 금융 정책"이라며 "아베노믹스의 결과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개입이 아닌 자유를 통해서도 시장 자본이 늘어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힘줘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mailto:anhw@hankyung.com)

#### ④ 김태형 대표 "한국 구직자, '기회의 땅' 일본으로 눈 돌려야 "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10회 일본경제포럼 발표자로 나선 김태형 파소나코리아 대표이사. / 최혁 기자

"일손이 부족한 일본 기업은 한국 학생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어학실력이 뛰어난 데다 목표 의식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취업이 힘든 한국 구직자들에게겐 일본이 '기회의 땅'인 셈이죠."

김태형 파소나코리아 대표이사(사진)는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볼스홀에서 개최된 제10회 한경 일본경제포럼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일본 학생들의 평균 토익 점수는 400점대인 반면 한국은 평균 660점"이라며 "상대적으로 국내 구직자들의 실력이 높고 취업 후 업무 성과도 좋아 경쟁력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은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15~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20년째 감소하고 있다. 한 해 일본 대학졸업자 56만여명이 전부 취업한다고 가정해도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80만명(연간)을 채우기 힘든 실정이다.

김 대표는 "국내 구직자들은 일본 기업에 대한 취업 정보가 부족해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현재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은 3005개 수준으로 이중 1000여개의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내 구직자들은 도시바와 같이 기업소비자간거래(B2C) 기업에 지원을 많이 한다"며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기업간거래(B2B) 기업엔 지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라고 귀띔했다. 국내 구직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 기업 취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이다.

일본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영어와 일본어 등 외국어 실력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여기에 정보통신(IT)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구직자라면 채용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 ⑤ 이춘규 박사 "일본 우량 일자리, 농업에서 나온다"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10회 일본경제포럼 발표자로 나선 이춘규 박사. / 최혁 기자

"최근 일본에서는 농업의 가치를 미래성장산업으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비즈니스의 기회를 넓히고 우량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경제 성장의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춘규 경제학 박사(연합뉴스 국제경제부 기자·사진)는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개최된 제10회 일본경제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 박사는 이날 '21세기 미래성장산업 일본 농업과 일자리'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박사는 "과거 일본의 농업 구조는 한국과 유사했다"며 "고령화 인력과 소규모 가족농 등이 대다수였던 농업은 사회적으로 저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농업을 국가 식량 안보의 개념에서 확장해 미래의 생명 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박사는 "젊은 층의 귀농은 2010년에 비해 2014년 2배 이상 증가했다"며 "농업을 일자리와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농업을 장려하고 있다. 지난달 일본 미에현 이세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 회담에서는 농업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정상들은 농업 분야의 17개 항목에 대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농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농업 육성을 위한 의지를 정책에도 반영했다. 이 박사는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0년까지 농산물 수출 1조엔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수출이 늘어나면 일본 내 농업 관련 일자리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상시화될 경우 농업의 지위가 크게 향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예상한 일본은 이미 농업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중이다. 그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는 2012년도부터 정부개발원조(ODA)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이라며 "올해 안에 아랍에미리트(UAE)에 농업 설비를 짓고 3년 안에 300억엔 규모의 설비를 수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일본 농업의 성장이 한국 경제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현재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은 농업에도 적용된다. 우리나라도 농업의 잠재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